

이번 학기 우리신문은 학부 이후 취업과 대학원 진학의 갈래에서 연구자의 삶을 선택한 '공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주목한다. 이번 신문에서는 소금쟁이를 통해 진화의 과정과 생태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고 있는 생물학과 진화생태전공 이병호(석박사통합과정 9기) 씨를 만났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에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을 위해 월세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취약계층이 가장 많이 분포한 고시원 거주자들은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진 상황이다.

# 대학주보

## “그냥 교양수업 아닌가요?” 희미해진 후마의 의미 학생 불만은 ‘평가’와 ‘강의’ 방식에 집중

권도연 기자 khudy94@khu.ac.kr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창간 71주년 특별기획  
후마니타스 15년을 묻다

# 2011년 출범한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는 “한국을 대표하는 교양 교육 모델을 만들었다”는 찬사를 받으며 구성원의 자부심으로 자리잡았다. 우리신문은 15년이 흐른 지금, 교양교육의 전범(典範:본보기가 될 만한 모범)으로 불리던 후마가 설립

당시의 철학과 역할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지 되짚고자 한다. 이번 1회차에선 후마를 바라보는 학생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는다. 이를 위해 대량메일 시스템을 통해 재학생 168명의 답변을 수집했으며, 후마 교과목을 수강한 39명을 대상으로 개별 인터뷰를 진행했다.

### 15년 지난 후마, 학생 시각은

후마니타스칼리지는 2011년 국내 최초로 단과대 형태로 설립된 독립 교양기구나. 서울캠 교양학부, 국제캠 교양학부, 학부대학 세 곳에

의해 분산 관리되던 학부 교양교육을 후마를 통해 일관성 있게 하겠다는 목적으로 설립됐다. 또한 실용학문의 시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닌 지성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본연의 모습에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는 뜻도 있었다.

2010년 1월부터 4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공개포럼을 진행하는 등 노력 끝에 완성한 후마는 그해 9월 17일 출범식에 이어 2011년부터 우리학교에 도입됐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은 많은 것이 변했다. ‘우리가 사는 세상’과 ‘인간의 가치 탐색’ 2개뿐이던 중

핵교과는 6개로 늘었으며, 학생은 물론 교수진까지 구성원 변화도 크다.

우리신문은 설립 당시의 후마 철학을 살펴보고, 초기 설정한 교육 방향성이 현재까지 어떻게 이어왔는지를 되돌아보기로 했다.

다만 교육환경은 끊임없이 변화기에 15년 전의 방향성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그렇기에 후마에 산적한 여러 문제를 공론장에 올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논의할 것이다. 우선 학생들은 현재의 후마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들어봤다.

### “그냥 교양수업 아닌가요?” 후마 정체성 소실

후마를 통한 교양교육 혁신은 국내에선 새로운 시도였기에 많은 관심을 받았다. 도입 두 번째 해였던 2012년엔 QS아시아 대학평가 인문학 분야에서 18위로 올랐을 만큼 후마는 인정받았고, 경희를 대표하는 간판이었다.

다만 지금도 그렇다고 확인하기는 어렵다. 학교를 대표하는 브랜드 상징이라기엔 “후마를 잘 모른다”는 학생이 많았다.

3면에 계속 →

## 문과대 학생회비 사적 운용 의혹, 감사위 출범 학생회장, 부적절 사용 인정 ‘사과’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서울】문과대 학생회의 학생회비 사적 운용을 조사하기 위한 문과대학 감사위원회가 6일 제1차 임시 문과대학생대표자회의(문학대회) 의결을 통해 인준됐다.

6일 오후 7시 30분, 제1차 임시 문학대회가 문과대 101호에서 열렸다. 문학대회 의장을 겸하는 제58대 문과대 황희원(응용영어통번역학 2024) 회장을 포함해 24명의 문학대회 인원이 참석했다. 또한 5일 문과대학운영위원회(문운위) 의결을 통해 참석할 수 있게 된 일반 문과대 학생도 30명 이상 참관했다.

심의 및 의결 안건 중 ‘문과대학 감사위원회 구성 인준’ 건이 발의된 것은 지난 4월 28일 제10차 문운위 회의에서 학생회의 재정 운용에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학생회비 사업과 관련 없는 약 40만 원 상당의 13건 결제내역이 있었다. 회장단은 4월 15일 이를 인지한 이후 부적절한 사용 금액에 대해 보전했다. 이후 4월 28일 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공개했다.

문운위 성원들은 곧바로 감사위원회 TF 팀을 꾸렸다. TF 팀장을 맡았던 국어국문학과 이승훈(국어국문학 2025) 학생회장은 “범위를 벗어난 지출, 사용 목적이 불명확한 지출, 사적 운영이 의심되는 정황 등 복수의 문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학생회비는 단과대학 학부 전체의 공동 자산이라는 점에서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는 필수적 요소”라며 “문과대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을 제외한 운영위원회는 문과대 감사위원회 구성을 발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황 회장은 지난달 28일엔 13건 중 4건을 인정했고 나머지 건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지만, 이날은 13건을 모두 본인의 사용으로 인정했다. (사진=이환희 기자)

문과대 학생회 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지적된 13건의 지출 내역엔 황 회장이 서울캠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던 당시 결제한 비대위 뒤풀이 비용 3건과 여러 건의 택시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 회장은 지난달 28일엔 13건

중 4건을 인정했고 나머지 건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지만, 이날은 13건을 모두 본인의 사용으로 인정했다. 이어 “문운위 회의 이후로 다시 결제내역과 다녔던 곳을 확인하면서 제가 쓴 걸로 보여서 말이 조금 달라졌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

다”며 “더 알아보지 못하고 잘 모르겠다고 발언했던 점에 사과드린다”고 설명했다.

황 회장은 “이번 사안은 명백하게 부적절한 학생회비 사용이며 공적 자금의 성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본인의 판단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의적으로 유용할 목적은 아니었으나 엄격하게 지켜야 할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학생회장에게 있다”고 말했다.

‘문과대 감사위원회 구성 인준’ 중 첫 번째 ‘감사위원회 위원장 인준’은 국문과 이 회장이 위원장으로 추천받아 진행됐다. 의결 결과 22명 중 찬성 2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어진 ‘감사위원회 위원 인준’ 의결에선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가결돼 감사위원회가 발족됐다.

끝으로 황 회장은 “감사위원회가 요청하는 절차와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중하게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한 번 더 사과드린다”며 21시 12분 폐회를 선언했다. 감사위원장을 맡은 이 회장은 “문과대 학생회칙에 따라 14일 이내에 감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인쇄 매체를 통해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2 지역사회

# 청년월세 지원 확대에도 고시원 청년은 사각지대 전입신고 꺼리는 임대인, 현실의 벽

김가빈 기자 woo289504@khu.ac.kr  
원희재 기자 whj6470@khu.ac.kr

“현재 정책은 한 곳에 오래 자취하는 청년들에게만 중점이 맞춰져 있어 짧은 기간 지내는 고시원생들에게는 지원이 부족한 것 같다” 올해부터 고시원 생활을 시작한 A씨는 청년월세 지원정책이 고시원생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 월세 지원정책 확대에도 제도 인식 부족으로 지원 못 받아 고시원생 수혜율 1.4%에 그쳐

최근 청년층을 대상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월세 지원정책은 확대되고 있지만 고시원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은 여전히 제도의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회기동한 고시원에서 생활 중인 송지현(미디어학 2025) 씨는 금전적인 이유로 고시원을 선택했다. 송 씨는 “본가도 지방에 있고 자취방 월세도 너무 비싸 고시원을 택했다”며 “월세 지원사업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덧붙였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만 19~34세 청년 중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자(소득 및 재산요건 충족, 서울시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48% 초과~150% 이하)에게 최대 24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다. 다만 지원을 받기 위해서

는 전입신고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고시원에 거주 중인 학생들은 대부분 전입신고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지 못했다. 실제로 송 씨가 거주 중인 고시원 방은 전입신고가 돼 있지 않아 지원사업 신청이 불가능 상태였다. 이에 송 씨는 “처음 계약할 때 전입신고에 대한 안내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고시원 거주 청년이 주거취약계층의 상당수를 차지함에도 실제 월세 지원 수혜로 이어지는 비율은 낮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조사된 20대 주거취약계층의 79.5%는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었다. 반면 ‘2025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주거 현황’에서는 전체 수혜자 중 고시원 거주자의 비율이 1.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취약계층 중 일부만 복지 혜택을 누린 것이다.

## 전입신고 문제 신청과 수혜 시기 괴리도 제도 앞에 선 현실의 벽

현재 청년월세 지원제도는 고시원 거주 청년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전입신고 문제는 고시원생이 복지 제도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장벽으로 작용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주인이 집을 팔더라도 새 집주인은 기존



전입신고와 신청 시기 등 제도적 문턱으로 고시원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월세지원 정책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김가빈 기자)

세입자를 함부로 내보내기 어렵고, 보증금 반환 책임도 함께 떠안을 수 있다. 또한 은행 대출 시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 임대인 측에서는 전입신고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 전입신고가 되지 않은 매물은 비주택으로 분류돼 정부지원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고시원 생활을 했던 이정찬(건축학 2025) 씨는 전입신고를 하려 했지만 고시원 건물주에게 전입신고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 씨는 “고시원에 들어갈 때 전입신고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살게 됐다”고 말했다.

황규석 한국고시원협회 협회장은

“건물주 입장에서 전입신고 이후 은행 대출 및 매매가 제한되는 것이 두려워 전입신고를 안 받는 경우도 종종 있다”며 “전입신고가 가능한 곳과 불가능한 곳이 나뉘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도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지원제도 신청과 지원금이 지급되는 시기 사이의 공백이 큰 점 역시 한계로 꼽힌다. 정부의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9월 14일 선정자를 발표한다. 선정자는 5월부터 소급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선정 전까지 월세는 학생이 부담해야 한다. A씨는 “현재 정책은 짧게 거주하고 유동성이 강한 고시원 거주생들이 지

원을 받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약 2년 전 6개월간 고시원에서 생활했던 임경준(사회학 2024) 씨는 “군입대를 앞두고 단기간 거주가 가능한 공간을 찾다 보니 고시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며 “당시에는 정부정책까지 따져볼 여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 제도 사각지대 해소 공공임대와 맞춤 지원 관건

청년월세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공임대 확대와 청년월세 지원제도의 보완이 꼽힌다.

김중백(사회학) 교수는 “현금지원성 정책은 거주비용이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저렴한 빌라나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를 확대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황 협회장 또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공공임대 확대에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늘리는 것”이라며 “정책의 세분화를 통해 다양한 환경에 처한 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보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올해 3월부터 고시원 생활을 하고 있는 B씨는 “지원정책을 찾아봐도 기간이나 조건이 까다로워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학주보 @khunews\_jubo



KHUNews\_JUBO

## 인스타그램 채널 추가하는 방법

카메라로 QR 스캔 → 채널 팔로우

창간 71주년 특별기획

1면에서 계속 →

연재순서
1부 후마 15년, 약속한 미래 · 엇갈린 현재 ① 학생들이 바라보는 후마
2부 수업 · 평가 · 캠퍼스 격차 · 후마 운영의 현실
3부 전환의 시대, 교양교육을 다시 묻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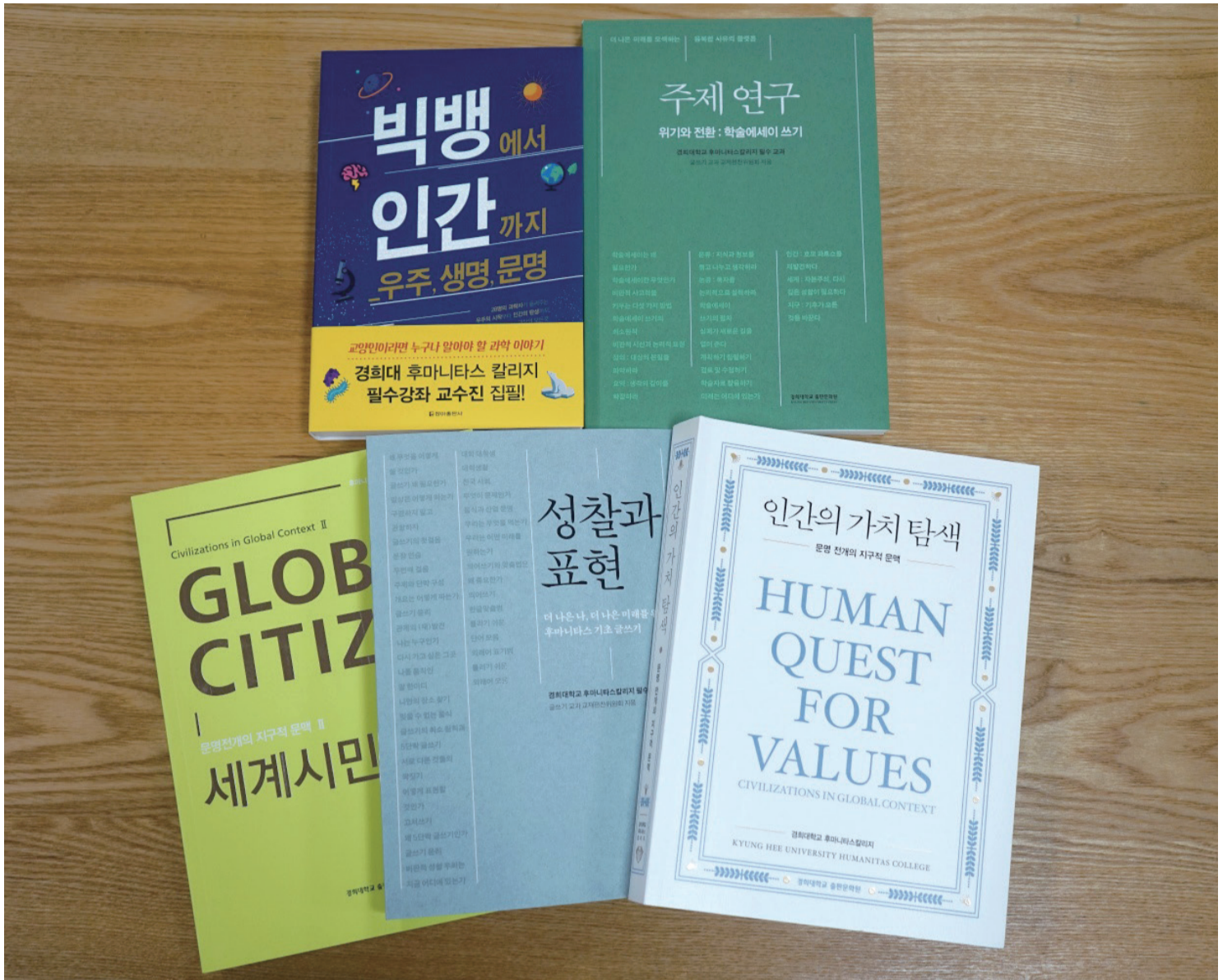
간혹 후마가 역사적, 교육적으로 갖고 있는 의미를 가볍게라도 알고 있는 학생은 있었다. “수업에서 교수님께서 언급해주셔서 알고 있었다”는 이나영(유전생명공학 2024) 씨나 “새내기배움터에서 후마니타스칼리지위원회 설명을 듣고 알았다”는 양혜인(문화엔터테인먼트학 2024) 씨가 그랬다. 하지만 후마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이라도 생소해하는 반응이 다수였다.

수강신청을 준비하며 후마를 처음 알게 됐다는 새내기 유재준(전자력공학 2026) 씨는 “처음엔 그냥 ‘특이한 이름이다’하는 생각만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특이한 이름을 붙일 정도로 교양교육에 신경쓰고 있겠다 느껴 다른 대학과 다를 거라는 기대가 있었다”면서도 “학교로부터 설명을 들어서 얻은 정보는 거의 없었다”고 덧붙였다. 장세린(디지털콘텐츠학 2026) 씨 역시 “강의명과 강의계획서만 보고 예측했을 뿐이지 그 외 정보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설명 부족은 재학 기간 내내 후마에 대한 낮은 이해도로 이어졌다. 재학생 정은비(국어국문학 2022) 씨는 “모든 대학이 전공과 교양으로 나뉘어 있으니 우리학교에도 당연히 교양 교과목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냥 교양을 부르는 이름이 후마니타스칼리지라고만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지원(중국어학 2024) 씨는 “입학했을 때나 수업 시간에 이런 배경에 대한 설명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출범 당시 세간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것과 달리, 현재는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부터 체감되는 인지도와 이해도 자체가 현저히 낮아진 실정이다.

평가 · 강의방식 가장 아쉬워 참여형, 토론형 수업 원해

후마에 관한 아쉬운 점으론 평가



도입 두 번째 해였던 2012년엔 QS아시아 대학평가 인문학 분야에서 18위로 올랐을 만큼 후마는 인정받았고, 경희를 대표하는 간판이었다. 다만 지금도 그렇다고 확언하기는 어렵다. 학교를 대표하는 브랜드 상징이라기엔 “후마를 잘 모른다”는 학생이 많았다. (사진=박류민 기자)

방식과 강의방식에 대한 지적이 두드러졌다. 129명이 응답한 우리신문의 후마에 대한 2학년 이상 재학생 인식조사에 따르면 평가 방식을 두고 긍정적인 응답(21.3%)보다 부정적인 응답(37.1%)이 더 많았다. 특히 절대평가를 원하는 학생들의 목소리에선 대학생으로서 성격보다 중요한 인문학적 가치를 지향하고 싶은 마음이 드러났다. 과거 보도를 살펴보면, 2010년 12월 후마대학생위원회 위원장은 “상대평가보다 절대평가 제도를 건의하겠다”고 대학주보와 인터뷰했다. 이후로도 총학 차원에서의 공론화 등 논의는 많았지만 대부분의 과목이 상대평가로 이뤄지는 실정이다.

“절대평가를 더 선호하는 편”이라고 답한 강민서(응용영어통번역학 2024) 씨는 “상대평가는 제한된 비율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있어 학습 의욕을 꺾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역시 절대평가를 선호하는 김아현(일본어학 2023) 씨는 “장단점이 있지만 상대평가는 내가 아무리 잘하더라도 모두가 경쟁자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후마는 절대평가가 더 적절하다

고 생각한다”는 진재윤(프랑스어학 2024) 씨는 “교양은 경쟁보다 각자가 얼마나 생각하고 표현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드러냈다. 김희주(국어국문학 2022) 씨는 “절대평가가 후마 이념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인문학, 철학 등 삶을 사는 데 필요한 지혜와 순수 학문에 대한 열망을 키울 수 있는 방향이 후마의 본래 취지에 맞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학생들은 ‘교수는 말하고 학생은 듣는’ 경우가 많은 강의 방식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밝혔다. 배구부 주장 염시원(스포츠지도학 2023) 씨에게 교양은 잠시 훈련장에서 떠나 다른 학과 학생들과 어울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 “토론형 수업을 선호한다”는 염 씨는 “다양한 학과가 모이는 만큼 토론하고 대화하며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지만 대부분 강의식 수업인 게 아쉽다”고 말했다.

입학 후 처음 들은 교양 ‘인가탐’에서 질 높은 주제의 토론을 경험하고 “지적 쾌락을 느꼈다”는 김한솔(국어국문학 2023) 씨는 “한 학기가 끝날 때쯤 돌아보니 정말로 ‘인간의 가치’를 탐색한 것 같은 성취감이

들었다”며 “일방향적인 강의보다 조금 힘들더라도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는 참여형, 토론형 수업이 더 좋다고 생각하게 됐다”는 경험을 소개했다. 김 씨의 경험은 후마 초창기 ‘교육의 6대 원칙’ 중 ‘단순한 지식 암기가 아닌 자신의 사고를 기르는 지평융합의 원칙’에 부합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재미부터 취업까지 다양한 AI 교과목 필요

학생들이 후마에 바라고 요구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 변해왔다. 과거 보도를 검토한 결과, 출범 첫해였던 2011년엔 ‘인가탐, 유사체의 지나치게 많은 학업 내용’,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너무 적은 수강신청’ 등이 있었다. 2014년 우리신문의 만족도조사에선 이공계 학생들이 후마 수업내용의 ‘진로와의 상관정도’를 지적했다. 2019년 중핵교과 ‘우리가 사는 세계’와 ‘시민교육’이 ‘세계와 시민’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선 ‘후마 구조대’ 학생들의 피켓 시위도 벌어졌다.

오늘날의 학생들 역시 각자가 바라는 후마의 청사진이 있었다. 양혜

인 씨는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는 수업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김다인(Hospitality경영학 2025) 씨는 “수업 내용이 더 재밌어지고 교과목 주제가 다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채민(문화엔터테인먼트학 2024) 씨는 “‘빅뱅에서 문명까지’는 학과별 편차가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 분반을 나누는 새로운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했다. 또한 새내기들은 대부분 “중고등학교에서 겪지 못한 현장 체험형 수업이 궁금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설문조사 관련 응답에서는 60.7%가 ‘현재 후마 교육이 인공지능 시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최근 교양 강의에서 AI 사용 과제를 받았다는 강민서 씨는 “점점 변하고 있다고 느낀다”면서도 “프롬프트 작성, 창의적 스토리텔링 등 다양한 AI 강의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서인(중국어학 2022) 씨는 “후마 교육과정은 인간만의 사고 추론 과정을 발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AI와 다른 새로운 사상을 마련하기 위해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4 종합



현재 장서 포화율이 174.4%에 달해, 매년 퇴임하는 교원들의 연구 서적이 수용되지 못하고 폐기 처분되고 있다.

(사진=대학주보DB)

시 장서 포화 비율이 매우 높아 기증을 받을 때는 기존 소장 자료와 중복되지 않는 서적만 선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캠 중앙도서관이 대안으로 제시한 디지털 아카이빙에 대해서는 “장서의 희소성과 학문적 중요성을 철저히 검증한 후 실행하거나, 훼손 우려가 있는 오래된 서적 등 실물 보관이 까다로운 책들에 한해서만 디지털화 작업을 진행해 보존하고 있다”며 “범용적인 디지털 아카이빙은 한계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퇴직 교수들 또한 디지털 아카이빙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학생 수요가 높은 전공 서적은 이미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 교수 개인 자료를 디지털화하더라도 활용도가 높지 않을 것이라 지적이다. 이 교수는 “아카이빙이 실제 이용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아카이빙 과정에서는 저작권 문제뿐 아니라 외부 접근 가능성 등 보안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정교한 시스템 없이 추진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추가 기증 서고 마련도 실현 미지수  
장서 보존 방안 논의 필요**

이에 퇴직 교수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대안은 단과대학 및 학과 단위의 ‘교수 기증 서고 구축’이다. 이 교수는 “단과대 건물 내에 작은 서고를 마련해 단과대 측에서 자체적으로 선별한 우수한 장서들을 학생들이 접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후마니타스칼리지 임형진(한국정치학) 교수는 “학내에 작은 공간이라도 마련해 퇴직 교수들의 주요 서적만 비치시켜 종합연구기관으로 활용한다면 장서들이 사장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같은 대안에 대해 일부 단과대학은 현실적인 장벽이 있다는 입장이다. 공과대학 행정실 관계자는 “공과대 건물 내에 공간을 내어 서고를 만들기에 자리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경대학 행정실 관계자 역시 “단과대학 차원에서 별도의 기증 서고를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방안은 공간 확보 및 유지 관리 측면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구체적인 장서 보존 대책이나 공간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퇴직 교원들의 연구 서적이 폐기물로 처리되는 상황은 앞으로도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다.

교원의 지적 자산 폐기를 막고 실질적인 보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제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 연구실서 밀려난 지식, 퇴직 교수 장서 갈 곳 없어 디지털 전환도, 기증 서고도 쉽지 않다

다음은 기자 eunohdo@khu.ac.kr

# 우리학교에서는 매년 40여 명 내외의 교원이 퇴직한다. 이들은 퇴임과 함께 수십 년간 사용한 연구실을 비워야하지만, 평생 축적한 귀중한 연구 서적과 자료 대부분은 마땅한 보관처를 찾지 못해 부득이하게 폐기 처리된다. 이에 우리 신문은 대학 도서관의 장서 포화와 퇴직 교원의 지적 자산이 폐기물로 버려지는 현 상태를 조명하고 그 대안을 알아봤다.

제작년 퇴임한 행정학과 한상연(도시계획학) 교수는 연구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모든 서적을 폐기해야 했다. 우리학교 중앙도서관에서는 따로 책을 보관할 수 없다고 연락 받은 데다 자택에도 책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 교수는 “학생들이 활용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연구실 짐을 정리하기 전, 중앙도서관 측에 도서 기증이 가능할지 문의했는데 이미 수년 전부터 포화 상태로 어려울 것 같다는

답을 받았다”면서 “오랫동안 모아온 귀중한 서적을 모두 폐기 처분하게 되어 무척 아까웠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화학공학과 이용택(공학) 교수 역시 퇴임 과정에서 공간을 정리하며 비슷한 난관에 부딪혔다. 이 교수는 “성당과 교회에 무료로 나눔한 일부 서적을 제외하고는 200만 원 가까이 사비를 들여 전공 서적 대부분을 직접 폐기했다”고 말했다.

**양캠 중앙도서관 포화  
장서 기증 어려운 현실**

이들이 오랜 기간 간직해온 장서를 폐기할 수밖에 없는 주요 원인은 우리학교 중앙도서관의 공간 포화 상태에 있다. ‘2025년 대학도서관 통계조사 제출 기준(양캠 통합)’에 따르면 우리학교 중앙도서관의 적정 소장 한계 도서 권수는 1,532,516권이지만 현재 소장 도서 권수는 2,672,635권이다. 장서 포화율로 따지면 174.4%에 달한다.

이에 양캠 도서관은 매년 대규모 폐기 처리를 진행 중이다. 서울캠의

경우 최근 3년간 약 11만 권 이상을 폐기했으며, 국제캠 역시 지난해 약 3만 권을 폐기한 데 이어 올해 5~7만 권 규모의 추가 폐기를 검토 중이다. 그럼에도 높은 장서 포화율을 낮추는 데는 역부족이다.

양캠 중앙도서관 측은 오직 물리적 공간 부족만을 이유로 장서 기증을 거절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국제캠 중앙도서관 학술연구지원팀 서수환 행정차장은 “기증 자료는 기존 장서와의 중복성, 학술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며 “실제로는 자료의 적합성이 주요 판단 기준”이라고 밝혔다. 서울캠 중앙도서관 역시 “기증 요청이 들어온 경우 확인 절차를 거치다 보면 대부분 이미 소장 도서인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도서관 ‘디지털 전환’ 대안 제시  
교수들은 ‘회의적’**

양캠 중앙도서관은 장서 수용 공간 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장서 구조의 ‘디지털 전환’을 제시했다. 국제캠 서 차장은 “학위논문의

인쇄본 제출을 중단하고 디지털 원문 중심으로의 수집과 보존으로 디지털 아카이빙을 확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캠 중앙도서관 역시 “장서 디지털화 사업이 시행된다면 자료의 영구 보존과 원활한 접근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다만 국립중앙도서관과 같은 국가기관 주도로 저작권 문제 해결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서관이 방대한 전공 서적과 단행본을 디지털 파일 형태로 제공하려면 저작권법에 따라 저자나 출판사의 동의를 일일이 받아야 한다.

개별 대학 도서관이 수만 권에 달하는 장서의 저작권자를 추적하고 이용 허락을 받는 데 드는 행정력과 비용을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학교에 기증이 불가한 교수들은 국립중앙도서관 등 외부 기관에 기증하려고도 한다. 그런데 이곳도 장서 포화 비율이 높아 기존 자료와 중복되지 않는 서적만 선별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의 한 자료실 관계자는 “본관 역

# 작은 행정 실수 개인정보 유출로... 사고 60%는 개인 부주의 구성원들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 개선 필요

이서현 기자 is4203850@khu.ac.kr

# 지난달 20일 경희사이버대학교 학점교류 강의 '현대의 생활법률'에서 우리학교 학부생 123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험 오류로 인해 재시험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조교의 실수로 개인정보 파일이 게시된 것이다. 해당 사례 외에도 행정 처리 과정에서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은 학내에서 꾸준히 발생해 온 문제다. 우리신문은 정보처를 만나 이와 같은 개인정보 유출 문제의 대책을 들어봤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19일이었던. 당일 오후 5시 예정이던 중간고사에서 문제 추출 오류가 발생해 일부 학생이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이에 이튿날인 20일, 추가시험 대상자 331명에게 일정을 공지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엑셀 파일이 공지 게시판에 게재됐다. 이 게시판엔 해당 강좌 수강생 전체가 접근할 수 있었다. 유출된 331명 중 우리학교 학부생은 123명이다. 한 피해 학생은 "이름과 학번, 연락처 등 특정 가능한 정보가 대부분 유출된 것 같아 당황스럽다"고 토로했다. 이후 사이버대학 측은 사과문과 함께 파일을 다운로드 한 학생들에게 개별 메일을 보내 삭제를 요청하고 비밀번호 변경을 권고한 상황이다.

사소한 실수로 발생가능한 개인정보 유출  
학내 개인정보 유출  
원인 60%는 '부주의'

실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사이버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행정 처리 과정에서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 유출은 우리학교에서도 꾸준히 반복되고 있다. 정보처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우리학교 전체 개인정보 침해 사고 중 내부 부주의로 인한 사고 비율은 약 60%에 달한다. 정보처는 "해킹과 같은 외부 공격은 방화벽을 강제로 뚫기보다 무심코 누른 피싱 메일, 권한 설정 실수, 실수로 유출된 개인정보 등을 통해 내부자 권한을 탈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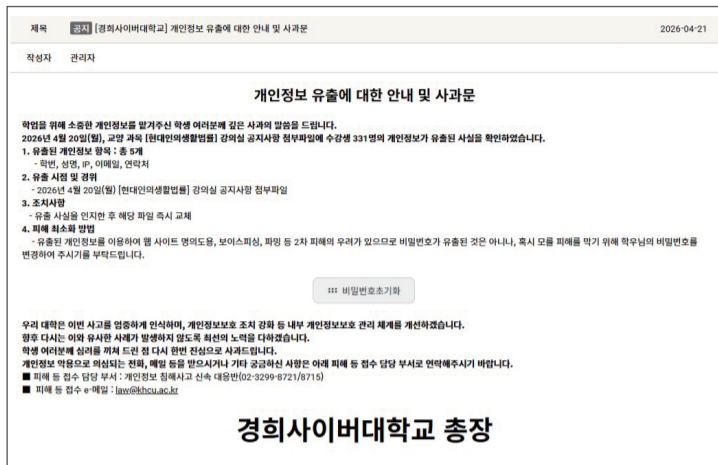
실제로 올해에도 개인 부주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있었다. 지난 3월 국제교육원에서는 성적표 및 수료증 발송 과정에서 담당자의 실수로 발송 주소가 잘못 입력돼 학생 308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있었다.

이성원 정보처장은 "해당 사례는 정보 열람 대상자가 직접 시스템에서 확인하면 될 정보를 행정 부서에서 친절히 개별적으로 안내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한 경우"라며 "의도와 다르게 정보 유출로 이어져, 최근에는 필요 이상의 개별 발송 과정을 지양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해킹과 별개로 일상적 행정 절차에서 발생하는 '작은 실수'가 곧바로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

72시간 이내 신고 · 책임자보고 등 개인정보 유출 시 대응 체계 존재해

이와 같이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



지난달 경희사이버대학교에서 올라온 학점교류 강좌 '현대의 생활법률'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사과문 (사진=경희사이버대학교 홈페이지 화면 캡처)

할 때마다 학교는 규정에 따라 동일한 사후 대응 절차를 밟고 있다. 우리학교의 개인정보침해 및 유출 대응 시행세칙 제14조는 사고가 발생하면 교육부 정보보호팀에 72시간 이내에 사실을 신고하고, 유출 피해 학생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개인정보침해 및 유출 처리 책임자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회수·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고처리보고서를 작성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보고서를 검토·승인한 뒤, 30일 이내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돼있다.

정보처는 사고 발생 시 금융 피해나 명의 도용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출 당사자에게 정부 기관 차원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

서비스에는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금융감독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금융결제원) ▲엠세이퍼(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개인정보보호위원회) ▲털린 내정보 찾기(한국인터넷진흥원·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있다.

주요 개인정보 마스킹·PC 필터 등 사전 유출 방지 대책도 있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방안도 마련돼 있다. 정보 취급자인 교원·직원·강사·조교 등이 인포21에서 학생의 개인정보를 조회할 때 학번과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는 자동으로 마스킹(숨김)된 상태로 제공된다.

통계나 사업 보고서를 위해 마스킹되지 않은 원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반드시 시스템에 기록으로 남기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정보가 취급자의 개인 PC에 남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각 취급자

의 PC 상에 저장된 개인정보가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PC필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타 대학의 경우에는 공지 등을 위해 공개 게시판에 자료를 업로드하기 이전, 파일에 주요 개인정보의 기재 자체를 차단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서강대 디지털정보처 정보전략팀 한 직원은 "선제적 필터링 방식으로 엑셀 파일 등을 업로드할 때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와 같은 주요 개인정보는 탐지해 차단하는 시스템을 약 5년 전부터 사용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학교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에서 재작년 '미흡' 판정을 받았으나, 작년에는 5월부터 세 달간 전문업체로부터 개인정보보호 관련 컨설팅을 받은 뒤 '우수' 등급으로 상향했다.

이 과정에서 관련 기존 시행세칙을 전면 개정하고 접근권한 관리 및 재난 위기 대응 지침 등을 새로 제정해 대응 체계를 고도화했다. 또 개인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매년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등 내부 구성원의 보안 인식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 처장은 "개인에 의한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는 마치 백신을 맞아도 독감에 걸리는 것과 같다"며 "체계적인 관리·감독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해 사고를 예방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구성원들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유의미하게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학주보 YOUTUBE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KHUNews

카메라로 QR 스캔 → 채널 구독하기

# 학위취득유예 2만 명 시대... “공백기가 두렵다”

## 학생 신분 유지하며 취업활동 이어가

김민영 기자 myk5060@khu.ac.kr

# 고용 시장의 한파가 지속되면서 졸업 유예가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 고등교육기관 학사학위취득유예생은 전년 대비 15.8% 증가한 20,769명에 달했다. 우리학교 역시 양캠 졸업 유예 인원(수로·졸업유예·학사학위취득유예)은 2024학년도 후기 2,217명에서 2025학년도 전기 2,776명으로 한 학기 만에

25.2% 증가했다. 지난 2월, 졸업 요건을 모두 충족한 후에도 일정 기간 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가 도입된 가운데, 우리신문은 유예를 선택한 학생들과 전문가들의 시각을 살펴봤다.

### “졸업장보다 학생증” ‘공백기’에 따른 두려움 때문

학생들이 졸업 유예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백기’에 대한 두려움이다. 현재 학사학위취득유예

제도를 통해 유예 중인 이민주(중국 어학 2021) 씨 역시 졸업 공백기 관리를 위해 유예를 선택했다.

이 씨는 “교수님으로부터 ‘졸업 후 2년의 공백기는 여전히 기업에서 중요하게 여긴다’는 조언을 들었다”며 “한 학기 유예하며 부족한 자격증과 기업 지원 요건을 채우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예생 A 씨 역시 “괜히 졸업 공백기를 만드는 것보다 유예가 취업을 준비할 때 마음이 편할 것 같았

다”며 ‘취준에 대한 압박감’을 유예 선택의 결정적 계기로 꼽았다.

‘무소속’ 상태가 주는 압박 또한 선택의 주 이유이다. 유예생 B 씨는 “이력서상의 공백뿐 아니라, 졸업 후 붕 떠 있는 내 모습을 직면하는 것이 두려웠다”며 안정감을 위해 유예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미래인재센터 김준완(첨단기술비즈니스학)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상담오는 학생들 상당수가 ‘대학도 사회인도 아닌 애매한 위치가 주는 불안감’을 유예 이유로 꼽는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많은 학생이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 상당한 압박감을 느낀다”며 “이 같은 불안정함이 스스로를 위축시키기 위해,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 유예를 선택하는 경우가 1순위”라고 설명했다.

‘재학생 및 졸업예정자’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모집 중인 제일기획 대학생 인턴, 삼성그룹 대학생 인턴이 대표적이다. 대상 그룹 대학생 스마트폰 영화제, 대한민국 대학생 광고대회 등 대외활동· 공모전 역시 대학생 신분을 필수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4학년 2학기를 앞둔 김은율(경영학 2021) 씨는 “인턴이나 대외활동 중 대학생만 지원 가능한 공고가 있어 유예를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B 씨 또한 “대학생만 지원 가능한 대외활동이나 인턴 공고를 접할 때 학사학위취득유예가 도움이 된다고 느낀다”며 “현재도 대학생만 지원 가능한 대외활동에 참여하며 커리어를 쌓고 있다”고 밝혔다.

### 공백기 자체가 감점 요인은 아냐 ‘내용’과 ‘밀도’가 중요

현재 인사 담당자들은 졸업 이후 공백기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지만, 그 기간을 채운 ‘내용’과 ‘밀도’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AP Search 인사&경력개발팀장이자 우리학교 겸임교수인 박종명(국제경영학) 교수는 “공백 자체를 감점하지는 않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공백기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유예를 통해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인사 담당자인 정주영 책임 역시 “공백기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은 없다”며 “다만 기업마다 프레스한 신입을 선호하거나, 다양한 경험을 쌓은 중고신입을 선호하는 등 기업문화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학 기간이나 졸업 이후 공백기가 길어진다면 그 기간 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며 “지원 직무와 관련해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수업을 듣는 등 구체적인 노력이 보인다면 기업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학사학위취득유예는 학생들이 일 경험을 쌓으면서도 학생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라며 “학교 역시 졸업유예생들을 위한 보다 세밀하고 적극적인 취업 지원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자격증·인턴·대외활동까지 ‘유예 기간 바쁘게 보내...’

유예생들은 늘어난 시간을 실질적인 취업 역량 강화에 투자하고 있다. 지난 학기 유예를 선택했던 이덕수(미디어학 2020) 씨는 한국어능력시험과 토익을 준비하고 대학생 기지단 활동, 개인 SNS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시간을 바쁘게 채웠다. 이 씨는 “여러 진로를 두고 고민하던 중 취업 준비가 충분히 돼 있지 않았고, 기업에서 공백기를 부담 요소로 본다는 이야기에 결국 유예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민주 씨 또한 자격증 준비와 취업 서류 지원으로 재학생 시절보다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 씨는 “컴활, HSK 등 자격증을 취득하고, 미래인재센터의 ‘My 취업 터닝업’, ‘졸업생 취업 집중반’ 같은 교내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A 씨 역시 “경험을 정리하고 자기 소개서를 쓰는 등 말 그대로 취준 생활을 주로 하고 있다”며 “유예로 확보된 시간 덕분에 스펙 쌓기뿐 아니라 미래를 다시 한번 그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예 제도는 ‘대학생’ 신분만이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유지하는 전략적 수단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인턴십 공고 상당수가 지원 자격을

**2026년 상반기 JOB FESTIVAL**  
내가 찾던 직무 선배와의 현장 멘토링

**2026.5.16.(토) 13:00~18:00**  
경희대학교 청운관  
5층,6층(특강) / 7층(멘토링)

**멘토링 (청운관 7층)**  
사전 신청자 대상 1:1 멘토링 진행(1인당 25분)  
\*행사 당일 현장 신청 가능

**멘토링 신청**  
신청기간 2026.04.28(화)~05.11(월), 선착순 매칭  
매칭발표 2026.05.11(월)  
신청방법 QR코드 스캔 후 구글폼 작성 및 제출

**직무 특강 (청운관 5층, 6층)**  
신청방법 QR코드 스캔 후 구글폼 작성 및 제출(행사 당일 현장 신청 가능)

특강장1: 청운관620호

13:00-13:50	AP비서	[외국계] 글로벌 무대로 가는 법: 외국계회사 취업전략
14:00-14:50	한국전력공사	[공공기관] 실제 면접관이 알려주는 공기업 취업전략
15:00-15:50	롯데월드	[홍보 마케팅] 대외활동 인턴-취준까지 홍보&브랜드 마케팅 취업 전략
16:00-16:50	LG생활건강	[영업 마케팅] 뷰티&패션 업계 영업마케팅 취업전략

특강장2: 청운관509호

13:00-13:50	토스뱅크	[금융] 은행권 취업 인사이드: 시중은행/인터넷은행
14:00-14:50	이마트	[MD] MD A to Z
15:00-15:50	빙두방앗간(유한) LKB방앗간	[푸드] 로스를 입사부터 방앗간까지 취업 전략까지
16:00-16:50	SBS	[미디어] SBS 뉴미디어 PD가 알려주는 스포츠 콘텐츠 제작

특강장3: 청운관619호

15:00-15:50	롯데정밀화학 (전 CJ제일제당)	[연구개발] 연구직 취업: 대학원 진학과 연구개발 취업 전략
16:00-16:50	COUPANG	[교육] 비전공생 쿠팡 교육 담당자의 취업 이야기: 영어/코딩 못해도 괜찮아

**멘토링 직무 구분**

- 인사/MD
- 기획/전략
- 홍보/마케팅
- 경영지원/회계/세무
- 영업
- 금융
- 연구개발
- 공공기관/지학행정
- 전문직/창업

**퍼스널컬러 진단 (청운관 5층)**  
신청방법 행사 당일 현장 신청

# 모자이크 · 마일리지 장학 통합해 '융합인재장학' 신설 전공별 역량 지원하는 '단과대학 특성화 항목' 더해져

김민영 기자 myk5060@khu.ac.kr

서울캠 '모자이크'·국제캠 '마일리지' 장학이 폐지되고 이를 통합한 '융합인재장학'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모든 계열의 학생에게 일괄 적용되던 토익 성적 등의 기준만 있었지만, 각 전공 특성에 맞는 항목이 함께 도입되면서 맞춤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융합인재장학은 오는 6월부터 신청 가능하다.

이번 개편은 이원화 형태로 운영되던 장학제도를 일원화해 학생들의 혼란을 해소하고,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수혜가능한 역량강화 장학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장학팀은 "학생 만족도 조사와 총학생회 주도의 설문 결과를 적극 수렴한 결과"라며 "소득분위라는 경제적 잣대를 넘어 누구나 노력한 만큼 보상 받을 수 있는 역량 중심의 장학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융합인재장학은 기존 모자이크·마일리지 장학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된다. 학업·국제화·개인·사회보

사 4대 역량을 중심으로 자격증·어학능력 취득, 공모전 수상 등 학생들의 자기계발 노력 및 활동 실적을 반영하는 등 기존 장학의 핵심 인정 항목들을 유지했다.

이에 더해 새로운 체계에서는 전공별 맞춤 역량인 '단과대학 특성화 항목'이 더해진다. 해당 항목은 각 단과대학의 학문적 특성과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설정한 것으로, 단과대학별 취업 및 사회 진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역량을 선정 기준으로 삼아 평가한다. 일례로 호텔관광대학은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이나 학부생 연구 프로젝트 수료 등을 인정 항목으로 설정했다. 장학팀은 "단과대별로 취업이나 사회 진출에 꼭 필요한 역량을 쌓았을 때 좀 더 직접적인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편으로 수혜 금액은 상향된다. 국제화 역량과 기타 역량 등 일부 항목의 지원금액은 1등급은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2등급은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된다. 수혜 금액 인상 배경에 대해 장학팀

기존 장학		개편 후
모자이크장학 (서울캠)	마일리지장학 (국제캠)	융합인재장학
성취 달성 학기에 신청 및 지급	마일리지 적립 후 재학 중 2회 지급	성취 달성학기에 신청 및 지급
재학 중 취득 실적만 인정	재적(재학+휴학) 중 취득 실적 인정	재학 중 취득 실적만 인정
학업역량, 진로역량, 국제화역량, 기타역량, 사회진출역량	학업역량, 국제화역량, 개인역량, 교육역량, 사회진출역량	공통항목: 공인어학성적, 자격증 취득 등 단과대학 특성화 항목: 특정 전공 관련 전문 자격증, 연구프로젝트 등

모자이크·마일리지 장학을 폐지하고, 단과대별 특성화 항목과 보상을 강화한 '융합인재장학'을 통합 신설한다.

은 "실제 자격 시험 응시료와 교재비 등 학생들의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보상 체계 또한 변화한다. 기존 마일리지 장학은 재학 중 단 2회만 인출할 수 있었으나, 융합인재장학은 성취를 달성한 해당 학기에 즉시 신청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적

기 보상' 구조로 운영된다. 다만 휴학 중 취득한 성취는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우리학교는 이번 개편을 시작으로 학생의 성취와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장학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장학팀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

리에 귀 기울이며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장학 혁신을 펼치겠다"며 "2026학년도 2학기부터 성적 장학을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지급 방식으로 전환해 장학금 신청 기간을 놓쳐 수혜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일 예정"이라 밝혔다.

# 통합형 수능 앞두고 입학전형 개편...정시 줄고 학생부 반영 늘어 '네오' 전형 면접 · 서류형 분리, 자연계 수학 · 과학 가산점

서리수 기자 sooxoosoo@khu.ac.kr

2028학년도 입학전형계획에 변화가 생긴다. 주요 변경 사항은 ▲정시 모집인원 감소 ▲네오르네상스 면접형 · 서류형 분리 운영 ▲정시 일부 전형에 학생부 반영 ▲자연계열 수학과 과학 교과 이수 학점 가산점 신설 ▲지역균형전형 지원자격 축소 ▲사회계 논술 수리 문항 조정 등이다. 이는 전체 학생이 동일하게 모든 과목을 응시하는 2028학년도 통합형 수능 도입을 고려한 변화다.

우선 정시 모집인원이 소폭 줄었다. 전체 모집인원의 55.6%(3,007명)를 수시로, 44.4%(2,404명)를 정시로 선발한다. 이는 2027학년도 수시 55.3%(3,006명), 정시 44.7% (2,427

명)보다 정시 비중이 소폭 줄어든 수치다. 입학처는 "통합형 수능 도입에 따라 계열별 특성에 맞는 선발에 어려움이 있어 정시 모집인원을 축소했다"며 "정시 입학생 중 입학 후 중도 포기자가 많은 점도 일부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류 평가 후 면접을 치르는 단계별 전형으로 운영하던 학생부종합전형인 네오르네상스전형은 면접형과 서류형으로 분리된다. 면접형은 수능 최저학력기준 없이 면접 배수를 확대한다.

학업 역량뿐 아니라 전공 적합성 및 인성 역량이 우수한 학생을 심층적으로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기 위함이다. 서류형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고 서류 100%로 선발한다. 최저학력기준은 인문·자연, 자율·자유전공학부는 2개 영역 등

급 합 5 이내이며, 의·약학계열은 3개 영역 등급 합 4 이내다.

수능 100%를 반영하던 정시 모집 역시 수능형과 수능 · 학생부형으로 이원화된다. 수능형은 수능 100%, 수능 · 학생부형은 수능 90%에 학생부 교과 및 비교과 10%를 반영한다. 특히 자연계열 수능 · 학생부형에서는 학생부의 수학 및 과학 이수 학점 혹은 과목 수에 따라 최대 8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이에 대해 입학처는 "통합형 수능 도입으로 단일 시험 성적만으로는 수험생의 학업 성취도와 학교 교육 참여도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수능에서 제외된 수학과 과학 심화과목을 학생부로 평가해 자연계열 지원자의 전공 기초 과목 이수를 확인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지역균형전형은 지원 자격을 당해 연도 졸업예정자로 한정해 현역 수험생만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는 고등학교 내신 체계가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변경됨에 따라 서로 다른 등급 체계를 가진 N수생과 졸업예정자 간의 성적 산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입학처는 향후 고교 전 과정 5등급제 적용 졸업자가 배출되는 2029학년도부터는 지원 자격을 다시 확대할 계획이다.

논술우수자전형에서 3문항 중 1문항이 수리 논술이었던 사회계열 논술은 이를 폐지하고 문항 수를 2개로 줄였다. 수능 체제 변화에 따른 학습 부담을 줄이고 인문 · 사회계열의 통합적 사고력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사회계 논술은 인문 · 체

육계와 동일한 통합교과형으로 출제되며, 제시문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및 분석하는 능력이 주요 평가 요소가 된다. 다만 특정 현상을 보여주는 도표, 통계자료 등이 제시문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1호(서면사과) 이상인 경우 추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입학처는 이번 전형 개편에 대해 "2028학년도 대입 개편은 고교 교육과정의 충실한 이수 and 학업 전반에 대한 균형 있는 평가를 지향하는 데서 출발했다"며 "통합형 수능 도입과 내신 체계 변화 등 급변하는 입시 환경 속에서도 유불리를 최소화하고 우수한 인재를 공정하게 선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고민을 담았다"고 밝혔다.

# 제2보존서고 자료 참고도서·정기간행물 대출 가능해져

김가빈 기자 woo289504@khu.ac.kr

【서울】 중앙도서관이 지난달부터 제2보존서고 소장 일부 참고도서 및 정기간행물에 대한 대출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를 통해 관내 열람만 가능했던 일부 자료의 외부 대출이 가능해졌다.

제2보존서고는 의학계열도서관 열람실을 변경해 조성된 별도의 보존 자료실이다. 의과대학 건물에 위치해 있으며 지난해 '중앙도서관 혁신 공간 창출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됐다.

현재 제2보존서고에는 일반도서뿐 아니라 백과사전, 사전, 도감 등 참고도서와 잡지, 학술지 등 정기간행물 자료가 배치돼 있다. 참고도서와 정기간행물은 원래 대출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서비스를 통해 대출이 가능해졌다. 중앙도서관 학술서비스팀 장소영 팀장은 "참고도서는 도서관 내부에서 필요한 부분만 잠시 열람 가능했고, 정기간행물은 분실이나 파손 시 재구입이 어려워 관내에서만 이용하도록 해왔다"면서 "도서관 이용자의 자료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모든 자료가 대출 가능한 것은 아니다. 대출 가능한 참고도서는

약 5만권, 정기간행물은 약 1만 5천권이다. 도서 검색 시 '보존서고' 아이콘이 표시된 자료에 한해 대출이 가능하며 대형 참고도서나 졸업앨범, 교내 간행물 등 보존 가치가 높은 자료는 기존과 동일하게 대출이 제한된다.

교내 간행물은 대학 및 대학원, 교내 연구소 등에서 발간하는 자료로 '경희법학'이나 'Oughtopia'와 같은 학술 간행물이 해당한다.

자료 신청은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도서를 검색한 뒤 '서고신청' 아이콘을 클릭해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한 자료는 중앙도서관 2층 중앙자료실에서 수령이 가능하다. 무인반납함 및 타관 반납은 불가하며 대출은 신분별 권수 범위 내에서 최대 5권까지 가능하다.

장 팀장은 "자료가 별도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이용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자료 반출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예상됐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보존서고 신청 방식과 동일하게 사전 신청 후 대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2보존서고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 자료 이동에 시간이 소요되지만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자에게 원활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서비스 시행을 통해 제2보존서고에 소장된 일부 참고도서 및 정기간행물의 대출이 가능해졌다. (사진=김가빈 기자)



『사국지』의 저자인 하응백(국어국문학 1979) 작가는 "우리 사회는 실제있고 포용력을 가진 국가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김민영 기자)

## 『사국지』 삼국을 넘어 사국으로 국가의 기원을 다시 묻다

김민영 기자 myk5060@khu.ac.kr

중국에 『삼국지』가 있다면, 이제 한국에는 『사국지』가 있다. 문학평론가이자 소설가인 하응백(국어국문학 1979) 동문이 40여 년의 준비 끝에 완성한 대하 역사소설 『사국지』는 단순한 역사 재구성을 넘어,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가의 기원을 묻는다.

집필의 시작은 1986년 강원도 철원 최전방 병거에서였다. 당시 군 복무 중이던 하 작가는 밤마다 『삼국사기』를 한문으로 필사하며 언젠가 우리 역사를 바탕으로 한 대하소설을 쓰고 싶다는 꿈을 품었다. 하 작가는 "미하일 솔로호프의 『고요한 돈강』 같은 장대한 서사를 우리 역사를 통해 구현하고 싶었다"고 회상했다. 이후 평론가로서 30여 년을 보낸 그는 2019년 자전소설 『남중』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정리한 뒤, '공동체의 정체성'을 탐구하는 작업으로 나아갔다.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삼국' 프레임에 가아를 포함한 '사국' 체제를 제시한다는 점이다. 하 작가는 신라·백제·고구려뿐 아니라 가아를 삼국통합의 핵심 주역으로 바라봤다. 특히 신라가 가아의 기반을 흡수하고 이를 국가 시스템 속에 융합한 것이 삼국통일의 '결정적 동력'이었다고 해석한다.

하 작가는 "신라는 가아의 철기 문명과 인프라를 적극 포용했고, 그 힘으로 삼국통일을 넘어 당나라 세력까지 몰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시각은 현대의 '국가정체성'으로 이어졌다. 저출생과 이주민 증가로 인구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오늘날, 하 작가는 기존의 '민족' 개념보다 '국가' 개념이 공동체의 중심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국지』가 그리는 삼국통일은 단순 정복 전쟁이 아니라, 서로 다른 집단을 융합해 하나의 국가 체계를 구축한 국가 건설의 과정이라는 것이다.

『사국지』에서 무엇보다 인상적인 부분은 압도적인 사실성이다. 하 작가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물론 중국의 『신당서』·『구당서』, 일본의 『일본서기』까지 방대한 사료를 섭렵했다. 전국의 유적지를 수차례 답사했고, 금석문과 지형 연구를 통해 지형적 세밀함까지 놓치지 않았다. 실제로 하 작가의 작업실에는 수백 편의 논문과 직접 정리한 연표, 지도가 빼곡했다. 그는 "소설 속 사실의 비중이 95%"라며 "인물 연보를 모두 짜놓고 사건을 넣었다"고 밝혔다.

작품 곳곳의 각주와 시대 설명도 이러한 고증으로 이어졌다. 『사국지』는 일반적인 역사소설과 달리 시대 상황과 지리, 연대를 세세히 설명한다. 독자가 당시 상

황과 공간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미질부'를 영덕으로, '실직'을 삼척으로 함께 표기해 낯선 삼국 시대의 지리를 현재와 연결했다. 하 작가는 "마치 드론을 띄워 공중에서 내려다보듯 객관적인 시점을 유지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총 5권으로 구성된 『사국지』는 시대별 주요 흐름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1·2권은 이사부 장군을 중심으로 우산국 정벌과 한강 유역 진출까지 신라의 성장기를 담았다. 3·4권에서는 김춘추·김유신·문무왕을 중심으로 백제 멸망과 나당전쟁, 삼한일통의 과정을 다룬다. 마지막 5권은 5세기 백제 한성 함락을 다룬 권외편으로, 삼국 간 원한의 갈등의 시작을 설명하는 프리퀀 역할을 한다.

『사국지』는 1,500년 전의 역사를 복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금 여기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길을 묻는다. 하 작가는 "우리 사회는 실제있고 포용력을 가진 국가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라가 가아·백제·고구려 유민을 품어 하나의 국가를 구축했듯, 오늘날의 우리도 다양한 구성원을 포용하는 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다.

결국 『사국지』는 익숙했던 '삼국통일'의 서사를 넘어,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 하나의 국가가 되었는지를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거대한 여정이다.

# ‘세계적인 대학 건설’의 미래 비전 천명

김희찬 경희기록관 관장

### 경희의유산③

‘1954년 학장취임식 오디오 릴 테이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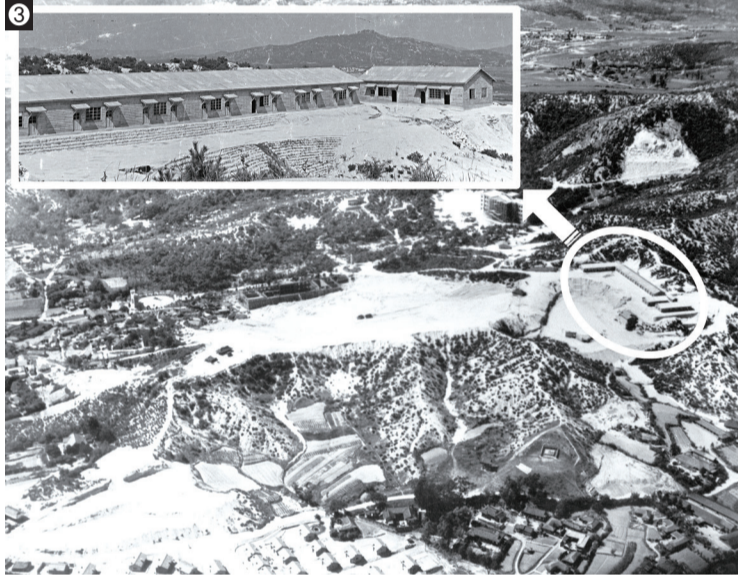
우리 대학은 1950년대 피난지 부산 가교사 시절부터 대학의 중요 역사를 사진, 동영상, 음성 등 시청각 매체를 통해 기록하려는 의지가 남달랐다. 시간을 거슬러 이러한 시청각 기록물들을 처음 접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면, 그 놀라움이란 이루 말할 수 없고, 그 여운이 아직도 생생하다. 2004년 개교 55주년 기념식 이후 「경희역사사진전」 개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를 논의하기 위해 당시 매체센터를 방문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필름, 오디오 릴 테이프, 영화필름 등 수많은 대학 시청각 기록물들을 접하면서 우리 대학의 모든 역사를 영상화하려고 했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토록 어렵게 제작된 영상물들이 여기저기 방치된 모습에 그저 안타까움만 더할 따름이었다. 그로부터 지난한 협의 과정을 거쳐 이 영상 기록물들의 원본은 중앙박물관을 거쳐 경희기록관으로 이관되었고, 부족하나마 대학의 소중한 역사 기록물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던 2015년 1월 27일, 여느 때처럼 먼지 수북한 수백 개의 오디오 릴 테이프를 정리하고 있었다. 당시 기록관에는 오디오 릴 테이프를 재생할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단지 보존 상태를 확인하고, 곰팡이와 쌓인 먼지를 털어내면서 릴 테이프의 생성 정보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작업을 이어갔다.

그날도 평소처럼 오디오 릴 테이프가 담겨 있는 종이 케이스의 뚜껑을 열고, 테이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꺼내 들었다. 그 순간, 바닥에 ‘1954년 학장취임식’이라고 적힌 빛바랜 메모지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당시 우리 대학에서 가장 오래된 음성자료가 60여 년 만에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한국에 있어서의 유일한 대학, 한국에 있어서의 어떠한 특정 대학을 상대로 해서 그와 같은 대학을 만들고 싶다 하는 심정은 없습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할 것은 한국의 어느 대학보다도 동양적이지요, 세계적으로 내놔서 굴지(屈指)가는 그 대학과 경쟁해야 되겠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처럼 빈한(貧寒)하고 국



① 학장취임식 풍경(1954.05.20.) ② 학장취임사가 녹음된 오디오 릴 테이프(2015년 발굴) ③ 취임식이 거행된 임시 가교사 모습(1954년)

가 경제를 위시해서 모든 점이 약한 이러한 환경에 있는 사람으로서 저 사람들에 비해서 백 배, 천 배의 노력과 정성을 바치지 않아가지고는 아니 될 듯 생각합니다.”(1954년 학장취임사 중 일부 발췌)

1954년 5월 20일, 초라한 임시 가교사에서 조영식 박사의 학장취임식이 거행되었다. 당시 우리 대학은 4년제 단과대학(1955년 2월 28일 종합대학 승격)이었기 때문에 총장이 아닌 학장이었다. 피난지 부산에서 서울로 이전(1954년 3월 24일)한 지 불과 2개월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어쩌면 꿈같은 ‘세계적인 대학 건설’이라는 미래 비전을 천명한 순간이었다. 그러면서 운명이라는 것은 우리 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정과 정성을 다하면 반드시 이를 수 있다는 강한 의지도 동시에 표명하고 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참으로 대답하고 원대한 포부였다. 1954년 우리나라는 한국전쟁의 대참사에서 벗어난 지 1년도 채 안 된, 1인당 국민소득 70달러에 불과한 지구상 최빈

국이였다. 당시 우리 대학은 국문학과와 영문학과 각 160명, 법철학과, 정치학과, 체육학과 각 240명 등 5개 학과에 전교생 1,040명 규모로, 캠퍼스에는 임시 가교사를 포함한 대학 본부, 대학원관 등 조그마한 건물 3채만 있는 미약한 신생 대학이었다. 그런 대학의 신임 학장이 ‘세계적인 대학 건설’을 천명했을 때, 그곳에 참석한 구성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절망 속에서도 미래의 희망을 보았을까? 아니면 단순히 취임사 해프닝 정도로 받아들였을까? 아마도 매우 진지한 모습으로 경청하고 받아들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하지 못한 캠퍼스 서울 이전과 개강을 이뤄낸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후전협정 이후 피난지 부산을 떠나 서울로 향하는 다른 대학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부러움에 좌절을 맛보았고, 그러면서도 결코 서울 이전이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의지는 역경을 뚫고’와 같이, 1954년 3월 24일 서울 이

전과 더불어 4월 15일 꿈에 그리던 역사적인 서울 첫 개강식을 거행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인 5월 20일 발표된 ‘세계적인 대학 건설’이라는 비전은 불가능이라 여겼던 서울 이전을 달성한 것처럼 언젠가 반드시 실현할 수 있다는 확신과 미래 희망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세계적인 대학 건설’의 꿈을 꾸기 시작한 것은 언제쯤이었을까? 아마도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이후 고뇌에 찬 캠퍼스 서울 이전 결정과 더불어 구체화 되었을 것이다. 특히 부지 선정 과정에서 그 의지는 더욱 굳어지고 강렬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캠퍼스가 위치한 고창산 자락을 학교 부지로 최종 선택한 이유는 바로 이곳이 ‘세계적인 대학원(大學園) 건설’에 매우 적합한 장소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부지 선정 이후 곧바로 고창산 중턱의 청운대에 올라 ‘천 년 이상 가는 본관’과 함께 세계적인 대학 캠퍼스 건설을 구상했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대학원(大學園)’의 기본 설계도인 우리 대학 최초의 마

스터플랜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당시로서는 어쩌면 실현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는 세계적인 대학 건설을 이렇듯 강렬히 지향하고 주장했던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이에 대해서는 1964년 발표된 〈개교 100주년 기념식에 보내는 메시지〉에서 그 단서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즉, 우리가 세계적인 대학을 반드시 건설해야만 하는 목적은 무엇보다도 이것이 창학이념을 실현하는 하나의 방편으로써, ‘지속적인 학술 발전을 통한 인류의 문화 향상과 복리증진,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 건설에 기여하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그로부터 72년이 지난 지금, 그 목표를 향한 우리의 노력은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한 길로 달려왔다. 그 과정에서 당시의 비전이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니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다.

1954년 ‘세계적인 대학 건설’의 비전이 이제는 ‘Towards Global Eminence’로 확장되어 여전히 우리 대학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이정표가 되고 있다.

“ 한국에 있어서의 유일한 대학, 한국에 있어서의 어떠한 특정 대학을 상대로 해서 그와 같은 대학을 만들고 싶다 하는 심정은 없습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할 것은 한국의 어느 대학보다도 동양적이지요, 세계적으로 내놔서 굴지(屈指)가는 그 대학과 경쟁해야 되겠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처럼 빈한(貧寒)하고 국가 경제를 위시해서 모든 점이 약한 이러한 환경에 있는 사람으로서 저 사람들에 비해서 백 배, 천 배의 노력과 정성을 바치지 않아가지고는 아니 될 듯 생각합니다. (1954년학장취임사 중 일부 발췌)

# 농구부, 한양대에 74-55로 승리... 5승 2패로 리그 4위

유진우 기자 jinwooryu@khu.ac.kr

【국제】우리학교 농구부가 시즌 초반 강력한 기세로 '2026 KUSF 대학농구 U-리그' 5승 2패를 기록하며 4위에 올랐다. 지난달 29일 한양대학교 올림픽 체육관에서 열린 U-리그 한양대전에서 74-55로 승리하며 지난 중앙대전 패배를 딛고 다시 일어섰다. 이로써 지난해 3월과 5월 두 차례의 한양대전 패배를 설욕했다.

이날 우리학교는 1쿼터, 임성채(스포츠지도학 2023) 선수의 첫 득점 이후 10점 차까지 벌리며 앞서갔다. 이후 2쿼터에서 24-24로 추격을 당하기도 했으나 박창희(스포츠지도학 2024) 선수의 연이은 득점으로 다시 격차를 벌렸다.

이어진 3쿼터, 한양대가 6점 차로 다시금 거리를 좁혔지만 5연속 득

점으로 스코어링 런을 만들며 승기를 잡아냈다. 4쿼터에도 4연속 득점을 올리는 등 74-55 대승으로 마무리했다.

11득점 7리바운드를 기록한 주장 김수오(스포츠지도학 2023) 선수는 "강점인 수비에 모두가 집중했고 덕분에 좋은 시너지가 났다"며 "선수들 누구 하나 빠짐없이 한 발 더 움직이려 노력했다"고 승리 요인을 밝혔다. 김 선수는 남은 경기를 두고 "모조리 이길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다"며 "부상 선수들의 복귀 또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올 시즌 팀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높은 슛 성공률이다. U-리그 참가 대학 중 2점슛 성공률은 51.5%로 4위, 3점슛 성공률은 32.5%로 2위다.

선수들은 자신감을 그 비결로 꼽았고, 감독 역시 이를 강조했다. 김



지난달 29일 한양대학교 올림픽 체육관에서 열린 U-리그 한양대전에서 74-55로 승리하며 지난 중앙대전 패배를 딛고 다시 일어섰다. (사진=유진우 기자)

감독은 "자신의 슛 폼을 만들었다면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감 있

게 던지라고 이야기한다"며 "캐치 후 슛까지 0.3초 안에 이어질 수 있

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함께하는 농구'를 핵심으로 언급했다. 김 감독은 "새로 합류한 김민구 코치와 한뜻으로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고, 선수들도 잘 따라주고 있다"며 "좋은 퀄리티를 만들기 위해선 결국 충분한 훈련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사람의 능력만으로 팀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배려와 희생이 이어지는 농구를 만들고 싶다"며 팀 중심 농구의 방향성을 설명했다.

다음 경기는 오는 26일 선승관에서 열리는 성균관대전이다. 일정에 여유가 있는 상황에 김 감독은 "선수들에게 5일까지 휴식을 준 뒤, 6일부터는 지난 경기에서 부족했던 1대 1 수비와 박스아웃을 집중적으로 보완했다"며 "상대 분석과 준비에도 많은 시간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축구부 시즌 첫 4경기 무패, "U-리그 3권역 우승이 목표"

도은오 기자 eunohdo@khu.ac.kr

【국제】축구부가 8일 반송체육공원축구장에서 열린 '2026 KUSF 대학축구 U-리그' 수원대와의 원정경기에서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이로써 U-리그 3권역 첫 4경기에서 2승 2무의 성적을 거두며 6개 팀 중 1위에 올랐다.

축구부는 지난달 17일 장안대와의 개막전에서 1-0 승리를 거뒀다.

이어 지난달 23일 명지대전 1-1 무승부, 이달 1일 국제사이버대전 4-2 승리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었다. 수원대전 무승부까지 더해 현재 승점 8점을 쌓았다.

주장 장하윤(스포츠지도학 2024) 선수는 "첫 4경기 동안 선수들이 비시즌에 준비한 것들이 잘 드러났다"며 "아쉬운 결과도 있지만 경기를 치를수록 팀이 단단해지고 있음을 느끼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신입생으로 올해 첫 U-리그에 참가하며 2골을 득점한 박태양(스포츠지도학 2026) 선수는 "대학레벨의 경기를 처음 뛰었지만 속도와 에너지 차이를 실감했다"며 "2골을 기록해 기쁘지만 안주하지 않고 더 많은 득점을 노리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개막 후 2골을 득점한 박민서(스포츠지도학 2025) 선수는 "경기를 뛰면서 득점에 대한 생각이나 욕심은 없었다"며 "승리하는 걸 목표로

뛰다보니 개인과 팀의 성적이 모두 잘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김광진 감독은 "공격적인 전술을 구사해 4경기 동안 7골을 득점한 점은 고무적"이라면서도 "실점을 허용한 수비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수비 전술이 아직 완전히 안정화되지 않아 수정할 사항이 많다"고 설명했다.

축구부는 지난 2월 '제62회 춘계 대학축구연맹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 올

해는 리그에서도 좋은 흐름과 함께 다시 높은 곳을 바라본다.

박 선수는 "매 경기 주도적으로 풀어나가다 보면 목표인 U-리그 무패우승에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감독은 "올해 많은 선수가 영입됐기에 적어도 U-리그 3권역 1등은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한 경기마다 차근차근 승리하다 보면 우리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거 같다"고 말했다.

KYUNG HEE UNIVERSITY

## Global Collaborative 2026 Summer Program

From Seoul to the World

"국내외 석학 및 국제기구 전문가의 강의를 듣고 세계 여러나라 학생들과의 교류의 장을 경험하세요!!"

- 프로그램 기간: 2026. 06. 30.(화) ~ 07. 20.(월)
- 개설강의: "Humanity, Civilization and Global Governance"에 특화된 23개 강의 (GC홈페이지 참조)
- 참여대상: 국내외 대학(원)생
- 신청방법: 2026. 06. 12.(금) 까지 GC 홈페이지 내 신청
- 장학금:
  - 조교장학: 강의료 100% 감면 (강의 당 1명씩 모집)
  - 경희대 동문자녀장학: 강의료 30% 감면
  - 경희대 교직원자녀장학: 강의료 50% 감면
- 문의: 미래문명원 Tel: 02-961-0995-6 Email: summer@khu.ac.kr 홈페이지: http://gafc.khu.ac.kr/gep

수강신청 바로가기

사설

# 후마 바로 세우기는 경희를 바로 세우는 일

우리신문은 이번 호부터 후마니타스칼리지 기획 연재를 시작한 다. 경희 대표 브랜드인 후마가 설립 당시의 철학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되짚어보려는 취지다.

15년 전 출범한 후마는 “한국을 대표하는 교양교육 모델을 하나 만들었다”는 안팎의 찬사를 받으며 구성원의 자부심으로 자리잡았다. 후마의 영향으로 다른 많은 대학이 교양교육 혁신 작업에 나서며 교양교육에 대한 대학사회의 인식 자체가 변하기도 했다. 취업 중심으로 재편되던 대학 교육의 흐름 속에서 오히려 인간과 사회, 세계를 성찰하는 교양교육을 전면으로 내세우며 ‘혁신’이라는 평가도 이어졌다. 그렇게 후마는 경희를 설명하는 대표 브랜드가 됐다.

그러나 학생들이 경험하는 오늘날의 후마는 출범 당시의 이상과 거리가 멀다. 대학주보의 취재 결과, 학생들은 후마니타스칼리지의

정체성 부재, 평가방식, 수업방식 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일부 학생들에게서는 후마의 교육철학과 목적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단지 졸업을 위한 필수 이수 요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후마니타스’라는 이름과 제도는 남았으나, 구성원 사이에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체감은 점차 희미해지고 있는 것이다.

후마의 본질을 되물게 하는 가장 단적인 예가 평가 방식이다. 현재 후마는 ‘인간의 가치 탐색’과 ‘빅뱅에서 문명까지’, 그리고 배분 이수 과목에서 A학점 비율을 45% 안으로 제한하는 상대평가를 채택하고 있다. 배움의 본질과 맞지 않는 평가 방식은 후마가 견지해오던 여러 가치들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학생들은 협업 대신 경쟁에 내몰리고 있으며, 정량화하기 어려운 가치까지 점수로 서열화되

는 현실에 회의를 느끼고 있다. 양캠 후마의 불협화음도 간과할 수 없다. 평가 방식을 개선하지 않는 목소리는 2017년 후마 내부에서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재작년 총학의 주도로 절대평가 논의가 공론화됐으나, 양캠 후마는 또 다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당시 대학주보는 취재 과정에서 건설적 논의보다 소모적인 대립이 이어진다는 인상을 짚게 받았다. 여기에 국제캠 후마 학장 선임 지연으로 인한 사령탑 부재와 학장의 교무위원 배제설 등 교내에서는 행정적 위상마저 약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후마가 여전히 우리 학교 교육철학의 핵심이며 오랜 시간 경희를 대표해온 브랜드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현재의 위기를 단순 교양교육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 후마의 위기는 곧 우리학교가 구축해 온

정체성의 위기이며, 이를 바로 세우는 과정은 결국 경희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일이 된다.

우리신문은 이번 연재를 통해 세 가지를 짚어볼 것이다. 먼저 구성원들은 지금 후마를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 현실을 진단하고, 후마가 어떤 이상으로 출발해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돌아볼 것이다. 나아가 인공지능과 융복합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후마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살펴볼 것이다.

대학주보는 후마에 산적한 여러 문제를 공론장으로 끌어올리고자 한다. 후마의 성과를 부정하거나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다.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를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번 연재가 후마의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는 실증적인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의 깊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

세시봉

# 사라진 공동체



원희재 기자  
whj6470@khu.ac.kr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척 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깜짝 놀랐다. 이제는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가지 않고 운동회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시도교육청별 자료에 따르면 전체 초등학교 가운데 수학여행을 준비한 학교 비율은 서울 5%, 경기 7%, 대전 3%에 그쳤다. 운동회 또한 마찬가지다. ‘초교 운동회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 초등학교 605개 중 106곳은 운동회를 열지 않았다. 운동장에서 흠뻑 땀을 뻘뻘 흘리며 뛰놀고, 버스에 올라 들뜬 마음으로 여행을 떠났던 학창시절의 특별한 기억이 지금의 아이들에게는 점점 낯선 일이 되어 가는 슬픈 현실이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엔 현대사회에 질어진 개인주의가 자리하고 있다. 일부 부모들은 수학여행에서 자녀에 대한 특별 관리를 요구하고, 운동회는 경기에서 진 아이들이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학교 측은 행사 진행에 부담을 느껴 공동체 활동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물론 부모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할까 걱정하는 마음, 경쟁에서 밀린 아이가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우려가 공동체적 경험의 부재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아이들을 모든 갈등과 경쟁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보호는 아니다. 갈등 속에서 타인을 이해하고, 경쟁 속에서 스스로를 다독이는 법을 배우도록 돕는 것도 교육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수학여행과 운동회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다. 아이들이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때로는 경쟁하며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다. 이는 교실 의자에 앉아서 절대 배울 수 없는 가치다.

필자는 아직도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학창 시절 운동회와 수학여행 이야기를 나누어 삼는다. 그때의 기억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배려와 성장이란 가치를 배우고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넘어져 본 사람만이 다시 일어나는 법을 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이 오래도록 지속될 삶의 태도를 만들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동체적 가치를 배울 기회를 지켜낼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정보유출사고 막으려면

# 해커는 사실 나였나

이서현 기자  
is4203850@khu.ac.kr



지난달 20일 사이버대 학점교류강좌 ‘현대인의 생활법률’에서 우리 학교 학부생 123명의 개인정보가 조교 개인의 실수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보 유출이 발생하면 우리는 통상 해킹 등 외부 공격이 원인일 것이라고 예상한다. 지난해 SK텔레콤의 고객 정보 해킹 피해와 같은 대형 사건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이다. 당장 지난 2월 우리학교에서 학생 89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건 역시 인포 21이 외부 공격을 받아 발생했다.

하지만 이번 사고의 원인은 사뭇 다르다. 외부의 공격이 아닌 내부 구성원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유출이다. 정보처에 따르면 우리학교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 가운데 내부 부주의로 인한 비율이 60%를 넘는다. 전국적으로도 작년 기준 최근 5년간 공공기관·민간기

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약 60%가 내부자의 업무 과실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정보처는 “내부자 업무 과실의 대부분은 학생에게 조금이라도 더 친절히 안내하려다 벌어진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학생이 직접 찾을 수 있는 정보임에도 더 쉽게 안내하기 위해 정보가 담긴 파일을 다루던 중 실수로 유·노출시키는 경우다.

정보 사고는 취급자 개개인에 의해 언제든지 발생 가능하다. 심지어 학생들이 운영하는 학생회나 동아리에서도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경우가 많아 유출 경로도 다양하다. 개인정보 필터링, 숨김 처리 등 정보처에서 손을 쓰더라도 한계가 있다.

정보처는 의외로 편리함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단계를 약화시키자는 의견을 다수 받는다고 전했다. 하지만 개인에 의한 정보유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편리성만을 위해 보호 단계를 간편화하는 건 위험 부담이 크다. 정보 보호에 대한 개개인의 의식 제고가 선행돼야 한다. 대학 구성원 개개인의 높은 정보 윤리 수준이 필요한 시점이다.



만평 해킹만큼 위험한 개인의 부주의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김진상 | 편집인 신동면 | 편집장 권도연

---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mailto:khunews@khu.ac.kr)  
제작 | 인쇄 (주)에스엠씨엔피

## 12 사람

# “인간 결코 특별한 존재 아냐, 생태계 일원일 뿐”

## 진화생태학자가 세상을 보는 시각

이지수 기자 ssu1404@khu.ac.kr

## 공부하는 사람들④ 생물학 전공

# 학부 4학년을 마친 학생들은 취업과 대학원 진학의 갈래 앞에 선다. 이중 대학원 진학은 ‘연구자의 삶’을 택하는 것이다. 이들이 한 명의 연구자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내는 ‘삶’은 개인의 성취인 동시에 사회 공공재가 된다. 이번 학기 대학주보는 ‘공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주목한다. 네 번째 주인공은 소금쟁이를 통해 진화의 과정과 생태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고 있는 생물학과 진화생태전공 이병호(석박사통합과정 9기) 씨다.

### 자연과 함께한 유년 시절 “모든 생명은 진화의 산물”

이병호 씨는 어린 시절부터 강변 풀밭을 맨발로 걸어 다니며 사마귀와 메뚜기, 잠자리를 채집하고 관찰하기를 즐겼다. 버드나무가 많아 이름 붙은 유(柳)등천을 잊지 못해서 평일에는 연구실에 머무르고 주말이면 고향인 대전으로 내려가는 일과를 반복하곤 했다. 수생 곤충을 특히 좋아했던 그는 이곳에 서식하는 소금쟁이를 자연스럽게 연구 대상으로 삼게 됐다.

진화생태학자로서 요즘 그가 몰두하고 있는 주제는 ‘화학적 오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다. 몇 년 전 인간이 복용하는 항우울제 성분이 하천으로 유입돼 가재에게 유례없는 대담성을 유발한다는 연구가 보고된 적 있다. ‘인간들이 우울해질수록 가재들이 용감해진다’는 생태계의 충격은 이 씨의 연구 주제와도 아주 밀접하다. 그는 현재 눈에 서식하는 애소금쟁이에게 미량의 살충제(농약)를 노출하고 부모 세대가 겪은 환경적 스트레스가 어떤 생물학적 기억으로 이어지는지, 자손 세대의 형질과 생존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학부 시절부터 이 씨는 유전학자 도브잔스키의 “진화의 개념을 통하지 않고서는 생물학의 그 무엇도 의미가 없다”는 말에 사로잡혔다. 특히 3학년 때 접한 한창석(진화생태학) 교수의 <진화생물학> 수업은



실험에 필요한 소금쟁이는 이병호 씨가 매년 직접 채집한다. 지난 주말에는 대전 대청호 인근 논에서 한 시간 만에 소금쟁이 100여 마리를 채집했다.

(사진=본인 제공)

공부를 선택한 결정적인 계기였다. 자연선택과 유전적 부동 같은 진화의 메커니즘이 그간 세상에 흩어진 수많은 호기심에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가 마주하는 생명체의 모습이나 현상은 모두 진화라는 긴 경로를 거쳐 온 결과물”이라며 “진화를 이해하면 ‘왜 이런 모습으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 공부는 나에게 ‘천직’ 실험과 연구가 주는 즐거움

어린 시절부터 몸이 약했다는 그는 공부를 ‘천직’이라고 표현한다. 적성에 맞지 않는 행정 업무나 대인관계의 스트레스를 마주하면 이석증 같은 신체적 반응이 나타날 만큼 예민한 기질을 가졌지만, 공부만큼은 달랐다. 확신을 얻은 건 대학원 진학 후 1년 4개월에 걸쳐 장기 실험을 수행하던 때였다.

이 씨는 “재미있는 일을 하면 힘들지도 않는데 너무 힘드니까 나와 안 맞는 건 아닐까” 고민하다가도, 다른 일을 했다면 몸이 두 달도 못 버텼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며 마

음을 다잡던 순간을 떠올렸다.

이 씨가 깊은 애정을 쏟고 있는 ‘진화학’은 교양서적 베스트셀러 목록에 빠지지 않을 정도로 대중적 관심이 높다. 그러나 정작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는 연구 활동은 여전히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연구 기반이 서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일각에서는 ‘다윈 후진국’이라는 뼈아픈 별명까지 얻었을 정도다.

이에 대해 이 씨는 “고등학교 교과서만 보더라도 기독교의 영향으로 진화 관련 내용이 소극적으로 서술돼 있고, 진화와 적응을 별개로 구분할 만큼 교육적 기반도 취약하다”고 말했다. 또한 “기초과학의 뿌리가 깊은 유럽이나 응용과학 강국이면서도 기초를 중시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초기부터 공학 중심의 응용과학에만 치중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기초학문 연구자들의 진로는 대학이나 연구소 등 학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 씨 또한 졸업 이후 2년 단위 계약직인 박사후연구원 생활을 이어갈 예정이다. 정규직 연구자로 정착하기까지 길고 불안정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지만, 학문을

향한 순수한 애정은 그 모든 과정을 견디게 하는 동력이 된다. 그는 “연구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하는 회의감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영역’이라면 ‘실험하고 공부할 때는 그저 ‘재밌다’라는 직관적인 감정만 남는 것 같다”고 말했다.

### 세상을 읽는 명쾌한 원리 단언하지 않는 태도 얻기도

이 씨에게 진화는 세상을 설명하는 가장 포괄적이고도 명쾌한 원리다. 이 씨는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으로 ‘도덕’ 이런 것들을 꼽지만 사실 인간에게 본질적인 선악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씨는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저 집단생활을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고 그 질서를 잘 유지하는 개체일 뿐”이라며 “법은 그러한 규칙을 명시적으로 형상화한 것이고 도덕은 그보다 넓은 스펙트럼에서 작동하는 집단적 압박이다”고 설명했다.

그의 관점에서 인간은 결코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그저 생태계의 일원이다. 개미의 진사회성처럼 인간의 선악 또한 환경에 따른 생존

전략일 뿐이라는 시각이다.

생태와 진화생물학의 교차점에서 있는 진화생태학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상호작용이다. 연구를 지속하며 이 씨에게는 대상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단언하지 않는 태도가 습관처럼 자리하기도 했다. 그는 “당장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역이나 동네, 심지어 학교마다 문화적 차이가 존재할 만큼 인간을 둘러싼 환경은 매우 복잡하다”며 “선부르게 평가하거나 무언가를 단언하는 게 진짜 위험하고 무식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길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필수 덕목으로는 회복탄력성을 꼽았다. 생물학의 세계에서는 방대한 경험의 축적과 정밀한 실험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 씨는 “수없는 실패에도 다시 실험에 나설 수 있는 단단한 마음과 체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무엇보다 강력한 무기는 ‘순수한 애정’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개미든 딱정벌레든 잠자리든 본인만의 취미 곤충이 있어 그 존재 자체를 진심으로 아끼는 친구라면 이 길을 즐겁게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남겼다.